시청률로 본 'MBC 편성 변화' 성적표는?

MBC가 5월 22일 '봄밤'을 시작으로 수목드라마 시간대를 기존 밤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앞당겨 편성했다. MBC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서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여가 시간이 길어진 시청자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며 9시 라인업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그 결과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미디어 데이터 조사기관인 TNMS에 따르면 첫방 시청률 4.8%, 7.2%로 시작한 '봄밤'은 5.5%(3회), 7.2%(4회), 4.4%(5회), 6.1%(6회), 5.2%(7회), 7.0%(8회)로 성공이라 말하기도, 실패로 부르기도 애매한 시청률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고 '9시 드라마' 라인업을 위해 오후 10시 시간대에 새롭게 편성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선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봄밤'과 맞교환한 '실화탐사대'는 10시로 처음 변경한 5월 22일 시청률이 4.6%로 기록되며 그 전주 수치보다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존 드라마 시간대인 밤 10시에 봄밤과 같이 첫 방송된 KBS2 '단 하나의 사랑'이 경쟁작이 줄어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하나의 사랑'은 1회 7.4%로 시작해 6회에서는 9.2% 최고시청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시청률 상승 중이다.

사실 '봄밤'은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작진과 정해인의 재회로 기획단계서부터 화제작이었다. 게다가 여자 주인공에는 최근 '아는 와이프' '눈이 부시게' 등을 통해 안정된 연기를 보여준 한지민이 캐스팅 돼 비슷한 시기 첫방을 시작하는 타 드라마와 비교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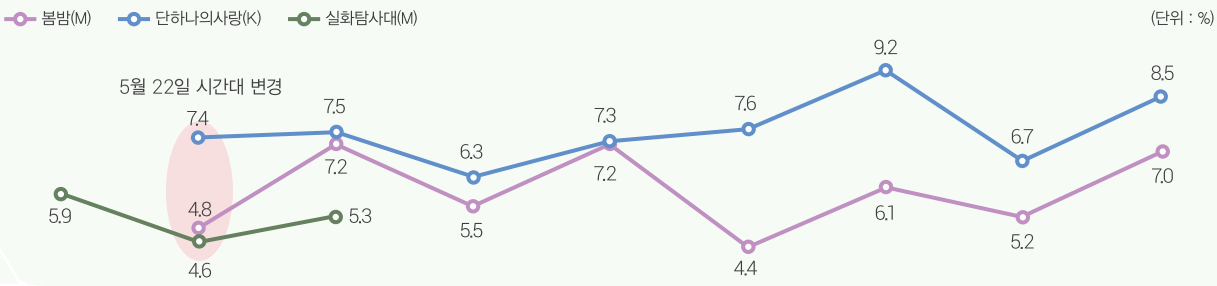
▲ MBC 수목드라마 '봄밤'

시간대를 변경하고 겨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봄밤'이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를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출발을 한 것은 분명한 만큼 저조한 시청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AA

김다혜 dahye@kaa.or.kr

〈표〉 MBC 수목드라마 '봄밤' 시청률 추이



*자료 : TNMS (수도권가구, 5.1~5.31)